# ‘소원 빌기’에 담긴 영적 비밀

## (예레미야 32:1~44)

8.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무를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9.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십칠 세겔을 달아 주되
10.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11.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12.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 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부치며
13.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소원 빌기’에 담긴 영적비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소원 빌기’에 담긴 영적비밀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어려운 구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고 오늘의 번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에 땅 매매 문서의 특징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당시의 땅 매매 문서는 파피루스로 되어있었는데 절반은 둥글게 말아서 중간에 구멍을 뚫고 끈으로 묶은 후에 봉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봉인하지 않고 남겨 두었습니다. 그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해가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의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실은 ‘소원 성취하라’는 말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출생지 아나돗에 살고 있는 사촌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팔기 위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해왔던 예레미야는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 때가 많습니다. '소원 성취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호의를 가지고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내면에 마귀의 속삭임이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품었던 소원들을 어느 정도나 이루셨습니까?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복지를 사셨습니까? 복지는 말 그대로 복으로 가득한 땅에서의 삶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항상 기뻐함과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의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가장 크게 보는 것과 우선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보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세상과는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공통적으로 소원 빌기를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 강릉의 정동진은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물론 소원 빌기는 새해 첫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도 소원을 빕니다. 명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소원 빌기를 좋아하는지 바닷가 숲길을 산책하다보면 곳곳에 돌로 쌓은 조그만 탑들이 있습니다. 사찰에 가서 번듯한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비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는 사찰의 기왓장을 사서 소원을 빌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소원이 적힌 기왓장이 영험하다는 사찰의 지붕에 올라가면 그만큼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연등을 달거나 풍등을 날리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 소원 빌기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소원 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원을 비는 것은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큰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원 빌기로 인해 치러야할 대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원 빌기의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영이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소원을 비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매우 밀접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소원 빌기를 감행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일까요?

몸을 통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어떠한 소원이라도 가진다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세상을 향한 소원을 갖는 순간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을뿐더러 기쁨과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소원하는데 소원할수록 기쁨이 사라진다니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대부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한 추구입니다. 돈 건강 장수 승진 합격 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한 소원을 갖는 순간 복으로 가득 찬 복지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본래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는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이 땅에서 진행되는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나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소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늘을 향해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 인간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권리를 따라 하늘 가지기를 소원할 때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도 막힘없이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나 역시 땅에 대해서 소원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소원에 담겨 있던 복지는 사라집니다. 이 땅에 대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지를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늘을 소원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만 신앙적으로 보면 잘못된 노래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라’는 말을 하지만 그 소원이 땅을 향한 것이라면 잘못된 덕담입니다. 땅을 향한 소원은 모두 마귀의 속삭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이제 며칠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복지를 살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땅에 대한 소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쁠 수 없었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없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내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소원들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소원의 재고품들을 땡처리 할 때에 복지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새해에는 소원 성취를 비는 인사를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향해 가지는 소원은 성취의 대상이 아니라 처분의 대상입니다. 땅의 소원을 팔 때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땅에 대한 소원을 가질 때에 복지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소원을 빌기만 해도 복지는 사라집니다. 마음에서 복지를 팔아버릴 때에 땅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적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0장에서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으로 불립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필연적 멸망이 예언되어왔으나 이 부분에서 회복이 예언되기 때문입니다. 한 때는 중동의 패권 국가였던 앗수르도 없어지고 바벨론도 없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심지어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는 교회입니다만 물리적이고 역사적 차원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BC.587년경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의한 11년간의 통치 중에 10년째입니다. 그리고 남 유다가 BC.586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남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 모든 영토를 상실하고 예루살렘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앗수르의 산헤립 왕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 위기에 놓인 적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산헤립의 십팔만 오천 명이 진멸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러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구원은커녕 멸망을 확정하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에 더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이 비참할 것을 예언하니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반국가사범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합니다. 몇 개월 뒷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았던 예레미야에게 땅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어서 가나안 정복 후에 각 지파에 할당 된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땅을 팔 때에는 지파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알고 있었기에 땅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법과 규례대로 땅 문서를 만들고 예레미야의 비서관 바룩을 시켜서 땅에 묻게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회복되어 그 소유권이 살아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선민에게 할당된 복지가 땅에 묻힌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문서가 바깥으로 나오면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50년 뒤에 있을 포로귀환 사건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복지는 밀물과 썰물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충족되면 밀려들어 왔다가 이유가 사라지면 다시 밀려나갑니다.

복지를 나타나게 하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33절을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34~35절을 보면 바알과 몰렉에 대한 우상숭배와 인신제사가 언급됩니다.

언뜻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인해 복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복지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몰렉 숭배는 내용적으로는 풍요와 다산에 대한 집요하고 끈질긴 애착의 표현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었고, 몰렉의 인신제사도 궁극적으로는 풍요와 다산에 대한 기원입니다.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몰렉 숭배가 강조된 이유는 인신제사를 행할 만큼 풍요와 다산에 대한 소원이 강렬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켜서라도 열 명의 자녀를 얻겠다는 식의 마음가짐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민들은 이렇듯 풍요와 다산에 대한 소원 빌기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얼굴을 향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을 얻기 위해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얼굴을 지속적으로 향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알이나 몰렉 숭배는 풍요와 다산이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소원성취의 방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동산 투자의 방법, 오천 만원으로 십억 벌기의 방법, 흑자 경영의 방법 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은 땅을 향해 가지는 대표적인 소원입니다. 그 외에는 건강 승진 입학 혹은 취미 같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소원들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은 역시 부자 되는 것으로서 풍요와 다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만 이 땅을 향한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땅을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등 돌리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세상에 대해 소원을 갖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온 가족의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에 대한 기도는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등 돌린 선민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840년간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지만 결국 선민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땅에 있는 풍요와 다산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부흥에 도달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아주 지독한 악행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선민들로부터 복지인 나라를 거두어가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지를 거둔 것이 아니라 선민들이 복지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원과 복지는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소원이 생기면 복지는 사라집니다. 복지가 생기려면 소원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역설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소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은 택하신 선민들이 복지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며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장소를 낙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 복지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낙원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얼굴에 땀을 흘리는 삶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과도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타락 전의 아담은 이 세상 삶에 대해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세상으로 향했고 얼굴에서 땀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소원을 의미합니다. 마음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기쁘고 만족하겠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결과 가지게 된 특징은 이 땅에 대해서 소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방향을 정한 티를 내게 되었습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의 39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늘로 가야만 합니다. 이를 두고 3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향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타락한 유전죄의 체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

고 세상을 향해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소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근심이 생기는 이유도 이와 연관됩니다. 은근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은 세상에 대해 죽고 등지는 길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항상 기뻐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기에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일을 마주한다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복지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알고 나면 '소원 성취하세요.'라는 말이 더는 덕담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를 대신해서 속삭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유전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소원이 쇠심줄처럼 질깁니다. 하나님께서 840년간 선민들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내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과 같습니다. 풍요와 다산에 대한 소원을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있던 선민들에 대한 복지의 계획도 깡그리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대한 소원을 십자가에서 땡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소원을 내 마음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한 길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소원한다면 땅에는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지는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지가 주어져도 또 다시 작은 소원이라도 생겨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복지도 등지게 됩니다. 이것이 소원 빌기에 담긴 영적인 비밀이자 역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자 소원할수록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복지는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연초의 인사는 '땅에 대한 소원은 십자가에서 죽이세요. 그러면 복지가 임할 것입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땅에 대해 '소원 성취하세요.'라는 말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Happy New Year'라고 외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구 전체가 '소원 성취하세요.'라는 노래로 마귀가 감동하는 합창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미련이 남았던 모든 소원을 십자가로 땡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 땅에 대한 어떤 소원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원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겠다는 다짐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소원에 담긴 영적 역설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땅을 향한 소원 속에 담겨 있는 복지를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소원하기를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